

# 天 賦 眞 源 經

(天 地 篇)

이 성 호 옮김

財團法人 國際道德協會 一貫道

## 인 사 말 씀

全國各支部 先生任과 道兄弟姊妹 여러분 道務에 얼마나 手苦가 많으십니까. 이 小冊字는 明明上帝任께서 내려주신 眞理의 根本인 經文 十餘篇中의 一卷을 于先 天地篇을 翻譯한데 대하여 學文도 未熟하고 拙劣함을 賢明하옵신 先生들의 叱咤와 責望은 勿論 앞으로 많은 指導와 鞭撻을 하여 주옵시면 感謝하겠습니다. 不肖譯者가 時間과 經濟가 許諾하는 限 다음 列舉하는 冊字 眞理篇 人生篇 道德篇 性心篇 行動篇 修養篇 智能篇 造化篇 庇喻篇 禍福篇 必然篇 價値篇 感應篇 歲月篇 限界篇 順序篇을 刊行코저 하겠습니다.

癸酉 八月 十四日

譯者 韓 昌 憲 拜

一名永祐

人世則官有上下之位 民有尊卑之差上天於人 無男女老少貴賤之別 一視同人  
少無遺棄之理 但善義者 能承天來之福祿 不善者自絕天來之福祿也

인간 세상에는 벼슬아치가 위아래의 등급이 있고 백성은 높고 낮은 차별  
이 있으나, 위로 상천에 계시는 명명상제님은 이 세상 인간들을 남녀 노소  
귀천의 차별이 없이 똑같은 인간으로 하나같이 보아 주셔서 조금도 버리는  
이치가 없느니라. 단 착하고 의로운 사람은 상제님이 보내주시는 복록을  
받게 되고, 착하지 못한 사람은 제 스스로 상제님이 보내주는 복록을 끊어  
버리느니라.

天地無言 乾乾不息理氣循環 發生萬物 隨時成熟 聖君 仁德施政 國泰民安  
豐饒經濟矣

하늘과 땅은 말이 없어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理氣를 循環시켜 萬物이  
태어나고 시기를 따라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임금은(지금 대통령)  
어진 덕으로 정사를 베풀어 나라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의 경제를  
풍요롭게 하느니라.

天理附於人性 地利養於人身 使居於世 發育五穀百果 豐饒萬物若上不斷天  
恩 世不絕人惠則 世世子孫 富貴榮華矣

상제님이 인간에게 성품(영혼)을 부여해 주시고 땅의 이로움은 사람의  
육신을 길러 주느니라. 또한 세상을 살아가게 해서 오곡백과를 발육시켜서  
만물을 풍요롭게 하며, 만일 위로 상천노모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아  
래로 세상 사람의 은혜가 끊기지 않으면 자자손손이 부귀를 누릴 것이다.

事莫大於事天 行莫貴於行道 事非事天 無重大之事 行非行道 無眞貴之行也

일증에서 明明上帝任을 공경하는 일보다 더큰 일이 없고, 행함에는 도를  
행하는 것보다 더 귀증함이 없고, 일이 명명상제님 공경하는 일이 아니면  
증대한 일이 없고, 행함에 도를 행하는 일이 아니면 진귀한 행동이 아니니  
라.

天道公正 四時有序 無不順成 人慾邪曲 萬事作爲 多苦多難 故公正成功之  
道 邪曲敗込之本也

上帝任께서 宇宙全體를 다스림은 지극히 공평하고 정대하며 春夏秋冬)  
四時節의 次例가 있어서 아무탈없이 順理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  
라. 사람의 욕심은 올바르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데 어려움과  
괴로움이 많고, 그러므로 공평하고 정대한 것은 공을 이루는 것이요, 마음

이 올바르지 못한 것은 패가망신 하는 근본이다.

人之道徳信仰 最終目的 到達神聖天民 天地四時循環 最終目的 遂成各種萬物也

사람이라면 당연히 萬物을 創造하신 明明上帝께서 人間各自에게 性靈을 附與시켜 각자의 몸에 主人이 있게하여 주시었으니 그 主人의 父母이신 上天 明明上帝任을 恭敬하고 우러러보며 依持 順從함은 물론 上帝任의 眞理이신 道徳을 至誠으로 修養하고 實踐하여 靈魂이 世上을 하직하고 無極理天으로 돌아가 上帝任의 子息이 되는 것이 修道者의 최종 목적(無上榮光)인 것이다.

全智全能하옵신 明明上帝任은 萬物이 生存하는 이 地球에 春夏秋冬의 四季節을 循環시켜 주시어 각종 萬物을 春節에는 蘇生시키고, 夏節에는 盛長시켜 주시고, 秋節에는 五穀百果를 成熟시켜 주시어 最終目的을 完遂하여 주시느니라.

天以眞理眞氣造成萬物 故無不順成人事多邪曲故難成諸事 故順天命者萬事順成 逆天命者 多失敗也

明明上帝任은 有形과 無形이 相互交合하여 萬物이 만들어 이루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順理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人間들이 하는일은 不正이 많아서 計劃했던 모든 일을 이루기 어렵고 그러므로 上帝任의 命命을 順從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順理대로 이루어지고 命命을 拒逆하는 사람은 失敗가 많으리라.

本始 天之於人 稟賦良心 福德 人自失其良心 亦福德而自取罪惡禍災 豈非可嘆者耶

본래 明明上帝任께서 人間에게 良心과 福德을 태어주었는데 人間들 스스로가 그 良心을 잃어버리고 또 福德을 쫓아 버리고, 罪惡과 災殃을 불러들이니, 어찌 歎息할심리 아니더냐.

蛇有咬毒 故人皆打殺 人若作罪則 天亦怒罰 人之殺蛇 有毒故也 天之罰人有罪故也

뱀이 물으면 독이 있는고로 사람들은 다 때려죽이고, 사람도 萬一 죄를 지으면 上帝任도 또한 노여워서 罰을 내리신다. 사람이 뱀을 때려 죽이는 것은 毒이 있는 연고요, 上帝任이 人間을 벌주심은 罪가 있는 然故니라.

天眼昭昭 至正至公 不遺無漏 敬天自誠自善之中 不勝喜悅 背天自邪自惡之中 不堪恐懼矣

明明上帝任의 눈은 밝고 밝아서 지극히 정당하고 지극히 공평하여 잊어 버리지 않으시고, 또 한 개의 물건이라도 새어나감이 없게 하시느니라. 上帝任을 恭敬하고 정성을 다해서 스스로 착한일을 행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太陽 雖光明 不照深長洞窟 天恩 雖鴻大 不建薄誠無信者也

太陽은 비록 밝아도 깊은 동굴속까지는 비추지 못하고 明明上帝任의 恩惠가 비록 크고 크나 精誠이 얕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치지 못하느니라.

刃雖銳 不斬無罪人 法雖苛 不凌上帝權矣

칼이 비록 날카로워도 죄없는 사람을 쳐서 죽이지 못하고, 나라의 法이 아무리 苛酷해도 上帝任의 權限을 凌駕하지 못하느니라.

天無日月之光 地不辨萬物之色 世無眞理之道 人不立五倫之序 故 天地之氣 無精 不能養萬物 江河之水無精 不能養魚族 人世之道無精 不能善化萬邦矣

하늘에 해와달의 밝은 빛이 없으면 地球가 어두워서 萬物의 形象과 色彩를 분별 못하고 人間世上에 眞理의 道가 없으면 사람은 五倫의 順序를 세우지 못하고, 그러므로 天地의 氣運이 精氣가 없으면 萬物을 기르지 못하고, 江河의 물이 精氣가 없으면 물고기가 자라지 못하고, 人間世上에 眞實한 道가 없으면 世界의 모든 나라를 善으로 教化하지 못하느니라.

雖有大艦大車 亦無小舟小車牛馬則 不能均運荷物 雖存大天明明上帝 亦無此世聖賢則 不能廣濟蒼生矣

비록 큰배와 큰수레가 있어도 작은배 작은수레와 牛馬가 없으면 荷物을 골고루 運搬하지 못하고, 비록 큰 하늘에 上帝任이 계시더라도 人間世上에 聖賢들이 없으면 넓고 넓게 蒼生들을 求濟하지 못하리라.

人皆稟賦於靈性而 不可背天理 若背天理勅是自絕福脉與生命線也.

人間은 누구나 上帝任께서 靈性을 附與해 주었으니 上帝任의 眞理를 背叛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上帝任의 道理를 背叛하면 이것은 제 스스로 福脉과 生命線을 끊는 것이니라.

順天命者 其心寬大仁善至賢聖不遠從物慾者 其心邪姦卑下與禽獸類似

上帝任을 順從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寬大하고 仁善해서 不遠間에 賢聖이 되고, 物慾을 쫓는 자는 不正하고 淫蕩해서 卑劣하기가 禽獸 種類와 다를바 없느니라.

日月星辰之運行 之息則天地破壞滅亡 人心臟血脉之順環止息則 人生死亡變屍 故 生氣者 流通活動循環暫時無停滯

해와 달과 별들이 運行을 멈춰 버리면 天地가 破壞되어 滅亡하고, 사람이 心臟과 血脉이 循環을 멈추면 그만 죽어서 屍體로 변하고, 그러므로 生氣란 항상 멈추지 않고 흘러서 통하고 活動하고 循環해서(돌고 돌아서) 暫時도 멈추고 쉬지 않느니라.

日月星辰上天之聚精 禽獸草木 山中之秀精 仁義禮智信人性之最善 苦 天無日月星辰則暗黑 山無禽獸草木則荒廢 人無仁義禮信則 頑暴矣

해와 달과 별은 위로 上帝님의 정기가 모인 것이요, 새와 길짐승과 초목은 아름다운 정기요, 仁義禮智信은 人間의 가장 착하신 性稟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日月星辰이 없으면 어둡고 캄캄해서 悲慘한 꼴이 될 것이요, 산에 금수 초목이 없으면 황폐한 땅이 될 것이요, 人間이 仁義禮智信이 없으면 暴虐하고 無道한 것이니라.

上順天意之真正 下承兩親之命命 誠心信仰 順從敏行 孝奉恭敬 少無怠慢則是爲天人之子 福之源樂之本矣

위로는 上帝님의 뜻을 眞正으로 순종하고, 아래로는 아버지의 命命을 받들어 誠心으로 信仰하고 민첩한 행동으로 순종하며, 孝道하고 받들어 恭敬하며 조금도 怠慢함이 없어야 하며, 이것이 上帝님과 人間의 子息으로써 福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즐거운 根本이 되는 것이다.

天地純粹陰陽一理氣 能生萬物而 萬物其形各異 其賢各殊 大小不一然 一理氣貫通萬物 亦萬物借生於 一理氣也.

천지는 수수 음양의 한가지 리기가 능히 만물을 생하고 그 만물은 각기 다르고 그 바탕도 각기 다르며, 크고 작은것이 하나갓지 아니하고, 연이나 하나의 理氣萬物을 貫通하고 역시 萬物은 한가지 理氣를 빌어서 이 世上에 생겨 났느니라.

人生此世 最敬者莫過於明明上帝最順者 莫過於天命 最務者 莫過於天道 不然而惟愛金錢 惟隨情德 惟行邪惡 上絕天恩 下廢人倫則 人生之終末何不可嘆乎.

人間이 이세상에서 가장 恭敬할 것은 明明上帝任 以上 없고(이보다 위가 없고), 가장 順從할 것은 상제님 위는 없고, 가장 힘써야할 것은 상제님의 道이니라. 그렇지 아니하고 도직 金錢이나 좋아하고 오직 情慾을 따라 다니며, 오직 邪惡한 行動을 하면, 위로는 上帝任의 恩惠가 끊어지고 아래로는 人倫을 무너뜨리면, 이것은 人間의 끝장이라 어찌 불쌍하지 아니하라.

晝夜交替 寒暑往來天地運行之最終目的 左右生成萬物之大功 修養道德 勤勞事業 人間生活最終目的 在於多受福樂 永生天國也.

낮과 밤이 바뀌고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이 오고 가고, 그러므로 天地가 運行하는 맨 나중 目的은 萬物을 낳고 길러서 成熟시키는 크나큰 功이 있고, 사람이 道德을 修養하고 부지런히 自己事業에 勞力하는 人間이 生活하는 目的은, 福樂을 많이 받고 壽命이 다하면 無極理天에 올라가 永生을 하는데 있는 것이요.

人之於世 富貴榮華 皆由於天來幸福 何不感謝上帝乎.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는 다 上帝任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幸福이니, 어찌 上帝任을 感謝하지 아니하라.

萬歲流運 四時相序 天以生物成物爲首德 歷代傳統 自古及今 人以順天修道爲原理而 天時無間斷 人世無廢道也.

數萬年이 連續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春夏秋冬 四季節이 서로 차례가 있어서 上帝任은 萬物을 낳고 길러서 成熟시켜 주시니 으뜸가는 德이요. 여러대의 歲月이 흘러 系統이라 전해받은 것이 옛부터 지금에 미치여온 것이요, 사람이 道를 닦고 上帝任을 順從하는 것이 基本的인 原則이니라. 이와 같이 행해야만 上帝任의 도움이 끊어지지 않으며, 人間世上에 眞天大道가 廢止되지 않느니라.

天人之間 以小若難之事 不可背叛至廣至厚之天恩德 亦親子之間 以私怨恨之憾 不可斷絕至恩至愛之慈親德矣.

上帝任과 人間사이에 조그마한 괴로움과 어려운 일로 지극히 넓고 지극히 두터운 明明上帝任의 恩德을 背叛하지 못할것이요, 또 어버이와 子息사이에는 私事로운 怨恨의 憾情으로 지극히 恩惠롭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慈悲로운 어버이德을 斷絶해서는 안되느니라.

順天理 行善義 樂道理者 其德與日並光 得天心 得人情行仁愛者 爲君治國則 其國與三春共和矣.

上帝任의 道理를 順從하고 善義를 행하고 道理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德이 太陽과 더불어 같이 빛나고 上帝任으로부터 性心 (즉 마음을 賦與받고)을 얻고, 세상 사람들로 부터 情理를 認定받고, 어질고 慈愛스러운 임금이 나라의 政事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 春三月 和暢한 봄날처럼 和平하리라.

仰觀天道之神妙造化 爲用心之浩然寬大 爲教化之萬邦民生則 其功果至重大矣.

明明上帝任의 道理인 신통하고 奧妙한 造化를 尊敬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보고, 度量이 넓게 마음을 써서 너그러워야 하고, 世界 모든 나라 百姓들을 道德이나 教養面으로 착한 사람이 되도록 教導하면 그 功이 지극히 重大하리라.

以至誠之心 敬至尊之上帝則 今來生活 享受無窮福樂而 愚昧世人 暫敬上帝 不得天祐則 以爲無效 尤加不敬不誠 豈不痛惜乎哉.

지극히 誠實한 마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明明上帝任을 恭敬하면 只今 오는 生活에 無窮한 福樂을 받아들이느니라. 어리석은 世上사람들은 暫時동안 上帝任을 恭敬하다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效驗이 없다하여 恭敬도 아니하고, 精誠을 더욱 더 하지 않으니 어찌 가엸고 불쌍하지 아니하랴.

人間生命在天 草木生根在地 人若妄作驕慢 暗行淫暴 從態放奢 則是自斷天根 自絕天緣 比如無根之草木 不待終日凋枯也

사람의 生命은 하늘에 있고 草木의 뿌리는 땅에 있느니라. 사람이 만약 망령된 짓을하고 교만하며 淫亂하고 慾心을 쫓아 방자한 行動을 하고 지나친 奢侈를 하면 이는 제스스로 上帝任이 내려주시는 福脉을 끊고 또 제스스로 福祿을 끊어버리느니라. 비유하자면 뿌리없는 풀과 나무는 하루종일 기다리지 않아도 시들어 말라 버리느니라.

以至公無私之天理公道 爲國家法網則人民安樂 國家隆盛 以偏私之人慾奸權 爲國家法律則人民困苦 國家敗亡矣.

지극히 公正하고 私事로움이 없는 上帝任의 眞理인 公平하고 바른 道理로 나라의 法과 紀綱을 삼으면 百姓들이 평안하고 즐거우며, 國歌經濟가 繁榮하고 偏僻되고 私事로운 慾心과 奸巧한 權勢로 나라의 法律을 삼으면 百姓들이 困苦하고 드디어 나라는 亡한다.

畏莫大於天威 恐莫大於天怒 雖無呼令叱叱之聲 於 惡則無漏懲戒 於善則無



漏報償 是故智者反其身改正其過 順守天意 無逆天命也

두려움은 上帝任 威嚴보다 큰 것이 없고, 두려움은 상제임의 노여움보다 큰 것이 없고, 상제임은 비록 呼喚하고 꾸짖는 소리는 없어도 惡을 행하는 자에게는 빠짐없이 懲戒를 하고, 善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빠짐없이 償으로 보답하느니라. 이러한고로 슬기로운 사람은 그 몸을 反省하여 그 허물을 바르게 고쳐서 上帝任 뜻을 지켜서 順從하고 上帝任命을 拒逆함이 없느니라.

德莫極於天德 愛莫大於天愛 恩莫重於天恩 功莫高於天功 其次 兩親 國家 社會 同胞 宗教 萬物也

德은 上帝任 德 이상 지극함이 없고 萬物을 사랑함은 上帝任 사랑 이상 큰 것이 없고, 恩惠는 上帝任 恩惠보다 더 重大함이 없고, 功은 上帝任 功 이상 높은 것이 없고, 그 다음은 아버지 나라 사회 동포 종교 萬物의 德과 사랑과 恩功이니라.

大海仁河百川之宗 泰山諸峯立陵之 宗 聖賢人間大衆之宗 上帝聖賢萬國之也.

큰 바다는 강물과 모든 냇물의 根本이다. 泰山은 모든 산봉우리와 작은 언덕과 큰언덕의 根本이요, 聖賢(성인. 현인)은 人間大衆의 根本이요, 上帝任은 모든 나라 聖인과 賢人の 根本이니라.

天無日月則萬物無生色 人無良心則百行無正義 日月照明之大元 良心正義之根本也.

하늘에 해와 달이 없으면 萬物이 色彩를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이 어진 마음이 없으면 모든 行動이 公正한 義理가 없느니라. 해와 달은 밝은 빛을 내는 큰 元素의 根源이요, 良心은 바르고 의로운 根本이다.

天不降禍無罪人 亦不降福無德人 豈願有罪幸免禍 亦何願無德幸受福乎

上帝任은 罪없는 사람에게 災殃을 내리지 아니하고, 또한 德이 없는 사람에게 福을 내려주지 않느니라. 어찌 죄있는 사람이 僥幸으로 災殃을 면하기 바라며, 또 어찌 德이 없는 사람이 僥幸으로 福받기를 바라단 말인고.

雖人自不知之罪 天猶明察 況自認之罪 若不痛悔則 其將當回重罰 何其堪當乎

비록 사람이 自己罪를 모를지라도 上帝任은 오히려 밝게 살피시거늘 하물며 自己罪를 알면서도 마음에 사무치게 뉘우치지 않으면 그 當將에 重한

罰이 돌아가는데 그 어찌 堪當할수 있단 말이고.

天道悠然靜默 運行不息 萬古如一 恒久不變 人生促急動作 有爲無成四時不同 百事多變 故 人事不如矣 道之恒久也.

萬物을 創造하신 上帝任의 道理는 泰然하고 조용하면서도 暫時도 쉬지않고 天體를 運行시킴은 太古대부터 하나같이 영원히 변함이 없고 人間들은 매우 급하게 敏捷한 行動으로 事業을 해도 항상 成就함이 없고, 四時 즉 春夏秋冬이 같지 않으니 모든 일이 변함이 많고 그러므로 人間의 일사는 上帝任 道理와 같이 恒久的으로 변하지 않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安天命行道義者 其志氣 恒常大膽公正 偏物慾望僥倖者 其情意 恒常動搖邪曲也

上帝任 命命을 履行하고 道德上的 義理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意志와 氣概가 항상 大膽하고 公正하느니라. 物慾에 치우쳐 僥倖을 바라는 자는 항상 搖亂스럽고 마음이 바르지 못해 흔들거리는 行動을하느니라.

天道之化 無爲而萬物 生長成熟 聖人之道 不勉而萬邦 感化仁善 天道不見強作 不違四時之循環 聖道無爲契約 不變萬代之流傳也

上帝任 道の 造化는 아무일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萬物을 生하시고 成長시켜서 열매를 結實시켜 주시느니라. 聖人の 道는 힘써서 傳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온 世界 人類를 感動케하여 어질고 착한 사람으로 教化하시고 上帝任의 道는 보이지 아니해도 強力하게 모든 일을 하시어 쉬지않고 連續해서 끊임없이 四季節의 春夏秋冬을 循環시키시고 聖人の 道는 契約함이 없어도 변함없이 萬代에 전하여 지느니라.

天眼至明 可以視有形無形之物 天耳至聽 可以聞至小至遠之音 何用欺瞞哉.

上帝任의 눈은 지극히 밝아서 形體있는 物件이나 形體가 없는 物件도 훤히 들어다 보시고 上帝任의귀는 들으심이 지극하여 아주 작고 微細한 것과 지극히 멀고 먼곳에서 나는 소리도 들을수 있느니라. 어찌 속임수를 쓸수 있으랴.

內心仁喜 外行正義 雖處暗夜 心燈恒明 情感快樂 如是處世者 雖世人不知存在 雖上帝恒常慰撫

안으로는 마음이 어질고 착하며 밖으로는 바르고 의로운 行動을 하면은 비록 어두운 밤에 있을지라도 마음의 등불이 항상 밝아서 感情이 愉快하고

즐거우며, 이와 같이 處世하는 사람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존재라 할지라도 오직 上帝任은 항상 위로해 주고 어루만져 주시며 많은 慈悲와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天理至公正 至偉大 至神明 至純愛 至尊嚴 主宰宇宙之運行 而主宰萬物之生命 故 體得天理天道者 偉大也

上帝任의 理致는 至極히 公正하고, 至극히 거룩하며 至극히 神靈스럽고 至극히 篤實하게 사랑하시고 至극히 尊嚴하시어, 宇宙의 運行을 主宰하시고, 또한 萬物의 生命을 責任지고 處理하시느니라. 그러므로 上帝任의 道理를 몸소 體驗하는 것은 偉大하고 거룩한 사람이니라.

敬畏天理者 無畏世上國法 悅樂天道者 不羨世上富貴也

上帝任이 온 宇宙를 다스림을 恭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世上의 나라 法을 두려워하지 않고 上帝任의 道理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世上의 富貴榮華를 부러워하지 않느니라.

君子雖處若雖之中 不忘天恩天德而感謝 小人雖處平安之中 不思天恩天德而不感謝 反作世上之不道德豈 不可嘆者乎

君子는 비록 困窮한 處地에 있을지라도 上帝任의 恩惠와 德澤을 항상 잊지 않고 感謝드리며, 소인들은 비록 편안한 環境에 있을지라도 上帝任의 恩惠와 德分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感謝할줄 모르며, 世上에서 道德을 反對로 惡行을 하니 어찌 嘆息할일이 아니랴.

天里之所貴者 莫大於公, 公之所貴者 莫大於道, 道之所貴者 莫大於德, 德之所貴者 莫大於仁, 仁之所貴者 莫大於愛, 愛之所貴者 莫大於愛親, 愛親之所貴者 莫大於孝, 孝之所貴者 莫大於敬天感謝也.

上帝任의 眞理가 所重하고 貴한 것은 公平이상 큰 것이 없고, 公平의 所重하고 貴한 것은 大道이상 큰 것이 없고, 道의 所重하고 貴한 것은 德이상 큰 것이 없고, 德이 所重하고 貴한 것은 仁이상 큰 것이 없고, 仁이 所重하고 貴한 것은 愛이상 큰 것이 없고, 愛의 所重하고 貴한 것은 어버이를 받들어 恭敬하고 사랑으로 모시는 것 이상 큰 것이 없고, 兩親 父母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所重하고 貴한 것은 孝道이상 큰 것이 없고, 孝道의 所重하고 貴한 것은 上帝任을 恭敬하고 感謝하는 것 이상 큰 것이 없느니라.

上帝 爲萬有之主, 亦有萬物養育之主宇宙廣大無邊 無逃避之處, 亦無天權之圈外 於人一視同仁 亦恩賜 少無不公偏私之理 或者作惡作罪 自超脫恩惠圈外

豈不可惜乎,

明明上帝任은 宇宙에 存在하는 萬物의 主人이요, 또한 萬物을 養育하시는 主人이시다. 宇宙가 넓고커서 끝이 없으나 逃亡할 곳이 없고, 또한 上帝任 權限의 테두리를 벗어날곳이 없느니라. 이 世上人間들은 하나같이 어질게 보시고 대하시며, 또 恩惠를 베푸심에 조금도 不公平하거나 私事에 치우침이 없는 理致인 것이다. 그러나 혹 어떠한 자는 나쁜 惡을 짓고 罪를 지어 제 스스로 上帝任이 베푸시는 恩惠의 테두리를 벗어나 버렸으니 어찌 哀惜하지 아니하라.

太陽 爲萬物之光源, 天理 爲萬物之生源, 道德 爲人世萬年之大法, 無日 萬物無色, 無理 萬物無生, 無道 萬民無存矣.

太陽은 萬物의 빛의 根源이요, 上帝任의 攝理는 萬物의 生命의 根源이요, 道德은 人間世上에 萬年의 法規요, 太陽이 없으면 萬物이 色彩가 없고, 上帝任의 攝理가 없으면 萬物의 生命이없고, 大道가 없으면 萬百姓이 存在할 수 없느니라.

至夜以後 知星辰有光上空 至苦以後 呼上帝要請救護 彼無智愚人兮 晝何無星辰 安何無上帝 星不擇晝夜照明 天不捨安危愛護 惑自背天理 不受天恩愛故也.

밤이 돌아온 이후에야 上空에 별빛이 있음을 알고, 지극한 苦痛을 당한 뒤에야 多急해서 上帝任을 부르며 救援을 要請하느니라. 저 無智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어찌 낮에는 별이 없다고 한단 말이나. 어찌 편안할때는 上帝任이 없다고 하시고, 별은 밤낮을 가리지않고 밝게 비취주고, 上帝任은 便安하고 危殆로움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保護해 주신다. 혹 어떤 사람은 제 스스로 上帝任의 攝理를 背叛하고, 上帝任의 恩惠를 받지 못한단 말인고.

世人不修天理正道 亦不盡人生本務以謂上帝無恩愛 嗚呼 何異隱居巖穴之中以謂日月無光 故 智者先修恩愛之道 求明者先處高陽之地也.

世上사람들은 上帝任의 攝理인 正道를 닦지 아니하고, 또한 人生의 根本을 힘써서 다하지 아니하고 上帝任의 恩愛가 없다고 하시고, 슬픈일이로다. 어찌 캄캄한 굴속에 숨어 살면서 이르되 해와 달의 빛이 없다고 하는것과 무엇이 다르랴. 그러므로 智慧가 있는 사람은 먼저 恩愛의 道를 닦고, 먼저 높은 곳에 계시는 理氣의 땅에서 光明을 구하여야 하느니라. 즉 明師의 指點을 받아야 하느니라.

人學聖書 無貫踐效行則 空處無德人感天恩 無信仰感謝崇拜則 或恐恩泉枯沈渴也

사람이 聖人の 글을 배웠어도 實踐하고 본받아 행함이 없으면 德이 없이 텅텅비어 쓸쓸하고, 사람이 上帝任의 恩惠를 感知하고도 믿음이 없고 感謝하고 崇拜함이 없으면 혹 恩惠의 샘이 말라 버릴까 두려웁도다.

上帝 不擇善惡之人慈愛, 太陽 不擇善惡之人照明, 惠雨 不擇香臭之草潤澤, 聖人 不擇賢愚之人教化也

上帝任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慈悲롭게 사랑하시고, 太陽은 역시 좋고 나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빌어주고, 恩惠로운 비는 香氣가 나고 惡臭가 나는 풀을 가리지 않고 비를 내려 주셔서 潤澤하게 적시어 주시고, 聖인도 역시 어질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똑같이 教化시키느니라.

天道有常萬代不易, 人事有變隨世改遷然, 往古來今 福善禍惡永久不變矣

上帝任의 道는 上空에 理氣가 항상 있어 영원히 변함이 없고, 人間들이 하는 일은 변함이 있어, 世上을 따라 變化改革이 되고, 然이나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善한 사람은 福을 받고 惡한 사람은 災殃을 받는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느니라.

違天理者 不順人道 逆親命者 不忠君命 故 觀其左行 可知右行 觀其上作 可知下作矣.

上帝任의 攝理를 背叛하는 자는 人間의 道理인 三綱五倫을 遵守하지 못하고, 어버이 命命을 拒逆하는 사람은 國家法令에 不忠하고, 그러므로 그 사람의 걸어가는 왼쪽을 보면 가이 바른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알수 있느니라. 또 그 위로 하는 일을 보면 가이 아래로 하는 일을 알수 있느니라.

陰天 難見日月之明光, 冬山 難尋芳美之美花, 邪心者難聞眞理道德, 惡習者難行善德嘉範.

날씨가 몹씨 흐리면 해와 달의 밝은 빛을 보기 어렵고, 嚴冬雪寒에는 산에가서 아름다운 풀과 꽃을 보기 어렵고, 부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眞理인 道의 談話를 듣기 어렵고, 惡한 버릇이 있는 사람은 積善으로 德을 베풀어 아름다운 模範된 行動을 하지 못하느니라.

雷聲霹靂 疾風暴雨 禽獸恐縮 蟄伏巢穴 和風輕暖 晴明良辰 萬物欣然伸長

故 天—怒萬物恐縮 天—慈 萬物歡喜也

하늘에서 벼락을 치는 천둥소리와 몹시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아치면 짐승들도 무서워 등우리와 글속에 들어가 움추리고, 날씨가 따뜻하고 和暢한 바람이 불어 晴明하면 萬物이 기지개를 펴고 자라나느니라. 그러므로 上帝任이 한번 노여워 하시면 萬物이 무섭고 두려워 몸을 움추리고, 上帝任께서 한번 慈悲를 베풀어 주시면 萬物이 기뻐서 좋아하느니라.

人眼視力 但不過近方有物體 天眼 有形物體 無形虛空 無遠近分別 共皆無不透視也.

사람의 눈은 다만 가까운 곳에 있는 物體를 볼수 있으나 上帝任의 눈은 形體가 있는 物件과 形體가 없는 虛空과 멀고 가까운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다 透視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祖與親之父母 平生之大恩 上帝之恩 祖祖子子孫孫人類之廣汎 世世之永久 古今之大恩德也.

恭敬하는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父母任이시라, 平生의 大恩人이시고 上帝任의 恩德은 人類始祖로부터 子子孫孫으로 영원한 未來까지 넓고 넓게 太古적부터 온 세상 사람들이 받고 있는 크나큰 恩德이니라.

天以陰陽風雨日月之一理氣 自萬古至現今永遠生育萬物 聖以道德誠信仁義一脈眞理 通往古達來世永遠教化蒼生矣.

明明上帝任은 陰陽과 비바람과 해와 달의 한가지 理氣로써 옛날옛적 太古때부터 現在에 이르러 영원히 萬物을 生育하고, 聖人은 道德과 誠實과 仁義의 한줄기 眞理로 太古때부터 只今에 이르러 영원한 未來까지 蒼生들을 教化시킨다.

家無支柱則顛覆 世無天道測滅亡 故 建築者 先堅固支柱 救世者 先定立天道也.

家屋에 기둥이 없으면 그 집은 넘어져 버리고 이 世上에 上帝任의 眞道가 없으면 世上은 滅亡하고 그러므로 집을 建築하는 사람은 먼저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야 하고, 世上을 救濟하는 사람은 먼저 上帝任 眞道가 世上에 證明되어야 할 重大한 命題이니라.

日月 以光輝明上天下地之萬物, 心性 以賢明正內外大小之萬事, 故 日月晦冥則萬物塗藏其色, 良心 掩蔽則萬事乖違敗亡矣.

해와달의 빛은,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地球의 萬物을 밝게 빛추어 주고, 마음은 賢良해서 內外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올바르게 밝히시고 그러므로 해와 달이 어두우면 萬物의 色彩가 감추어지고, 사람의 良心이 邪心에 가리우면 모든 일이 어그러져 敗亡하느니라.

宇宙 公自轉之中 晝夜相替 四時代序 是自然之公道 人生 世間之中 苦樂相半 新舊代謝 是人生之公道 仁善之行 福德資來 暴惡之行 禍厄侵入 是亦人生之因果公道也

宇宙는 公轉하고 自轉하는 가운데 밤과 낮이 서로 바뀌고 春夏秋冬 四季節은 次例를 따라서 바뀌는 이것은 大自然의 公道이니라. 사람이 世上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苦生과 즐거움이 서로 절반씩 되어 새것과 묵은 것이 서로 바뀌고, 이것이 人生의 公道이니라. 어질고 착한 行動을 하면 福德을 받고 殘忍하고 惡한 行動을 하는 사람은 災殃이 쳐들어오고 이것역시 人間因果의 公道이니라.

天如無言 明戒人惡 天如無視 明察人邪 若天一怒 萬民受難 天一降災 世界震撼矣

上帝任은 말이 없는 것 같으나 사람의 惡을 밝히시어 懲戒하시고, 上帝任은 보시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의 不正을 밝게 살피시고 萬若 上帝任이 한번 노여워 하시면 萬百姓이 受難을 당하고, 上帝任이 한번 재앙을 내리면 온세계가 울려서 흔들리느니라.

水德至大 魚忘其德 天德至大 人忘其恩 魚子微物 雖忘其恩 人子貴靈 何忘天恩 耶.

물의 德이 지극히 커도 물고기는 그 德을잊어버리고, 上帝任의 德이 지극히 커되 그 恩惠를 잊고 있으며, 물고기는 微物이라 그 恩惠를 비록 잊을지언정 사람의 種子인 高貴한 靈長之動物인 人間으로써 어찌 上帝任의 恩德을 잊을수가 있단 말이고.

天有晴陰交錯 亦有風雨之變態 世有平治戰亂 亦有盛衰之交替變換交替 是歲月與人世之流連歷程也.

하늘에는 맑은 날씨와 흐린날씨가 서로 엇갈리고 또한 비바람은 形態를 變化시키고, 人間世上은 平和롭기도 하고 戰爭으로 어지럽기도 하고, 또한 盛하고 衰함이 엇갈리는 換節期가 있고 교체된 세월은 더불어 人間世上에 흘러서 이러져가는 歷史의 과정이니라.

春夏秋冬 天地運行之至公常道 興亡盛衰 人間歷代之變遷過程也

春夏秋冬 四季節을 天地가 運行하는 것은 지극히 公正하고 변하지 않는  
뒸뒸한 道理이니라. 興하고 亡하고 盛長하고 衰敗하는 것은 人間歷代로 세  
월이 흐름에 따라 바뀌고 변하는 過程이니라.

上天 雖清明, 人性 不清白則 自作陰險地獄, 日月 雖光明, 人心 爲邪惡則,  
自作暗黑世界 雖有錦繡江山, 其人物眞善而后 可以樂觀佳麗 山川景概矣.

위 하늘은 비록 맑고 밝은데 사람의 마음은 맑고 깨끗하지 못하니, 제  
스스로 陰險한 地獄을 만들고, 해와 달은 비록 밝은데 사람의 마음은 道理  
에 어긋나고 惡毒하여, 스스로 暗黑世界를 만들고, 비록 錦繡江山이 있으나  
그 사람이 眞實로 善良한 이후래야 아름답게 빛나는 금수강산의 山川景概  
를 즐거움게 觀光할수 있느니라.

賢明者 先順天命 尊守良心, 昏愚者 先逆天命 又忤良心, 指向善良正眞者  
資生吉福, 指向邪慾方面者 招來憂患矣,

賢明한 사람은 먼저 上帝任 命命을 順從하고 양심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은 먼저 上帝任 命命을 拒逆하고 良心을 어기고, 착하고어질고 바르고  
참된쪽으로 뜻을 가지고 향하는 사람은 吉福으로 도와서 生活하게 되고,  
不正한 方面으로 향하는 사람은 근심과 災殃을 불러들이느니라.

昭昭天眼 唯愛 慈善之人, 唯助 誠貫之人, 唯憎 邪惡之人, 唯怒 驕高之人,  
然痛悔邪惡之緣斷絶 還受仁善之道則, 何人 不受仁天之寵愛乎,

上帝任의 눈은 밝고 밝아서 오직 慈悲로운 積善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  
고, 오직 誠實한 사람을 도와주고, 오직 邪惡한 사람을 미워하고, 오직 驕  
慢한사람에 대해서는 노여워하시고, 然이나 邪惡한 因緣을 마음아프게 누  
우치고 끊어버리면, 어질고 착한 道를 받으러 돌아오면 누구들 上帝任의  
어지신 寵愛를 받지 않으랴.

敬慕天恩 孝奉父母 每日不忘者 可以永保天祿 不知天恩 忤逆父母 恆時放  
恣者 必有陷沒罪穴矣,

上帝任 恩惠를 尊敬하고 思慕해야 하며, 또한 어버이에게 孝行하는 것을  
매일 잊지 않는 사람은 가이 上帝任이 福祿으로영원히 保護할 것이요, 上  
帝任 恩惠를 알지 못하고 어버이를 배반하고 버릇없이 건방진 行動을 하는  
자는 반드시 깊은 罪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느니라.



雲之浮次 風之吹息 盡是自然之造化喜而樂笑 悲而哀泣 盡是人情之感發天地有公轉自轉之中 亦不可無風雲造化 人生有情性正心之中 亦不可無喜悲感情矣

구름이 뜨고 잠기는 것과 바람이 불고 그치는 것은 이것이 다 自然의 造化요, 기쁘면 즐거워서 웃고 슬프면 서러워서 우는 것은 이것이 다 人情에서 일어나는 感覺이요, 하늘땅이 公轉과 自轉이 있는 가운데 역시 風雲造化가 없지 않고, 人生은 맑은 性稟과 바른 마음이 있는 가운데 역시 기쁨과 슬픔의 感情이 없을 수없느니라.

天寒結氷則 水面對鑱 慾熾消義則 良心蔽塞矣,

한늘의 날씨가 추워서 꽁꽁 얼어 붙으면 水面이 封鎖되고 慾心이 불타오르면 의로움이 消滅되어서 良心을 가로막아 버리느니라.

有光物體以後 能明他物, 有才智人以後 能救他困, 有仁愛人以後 能順天意矣

빛이나는 物體가 있는 以後래야 능히 다른 物體를 밝게 비추어주고, 재주와 智慧가 있는 이후래야 他人의 困苦함을 救濟할수 있고, 어질게 남을 사랑함이 있는 이후래야 능히 上帝任뜻을 順從하느니라.

正善之業 每有 天佑神助, 暴惡之行 集積 人怨人嫉 正善之業 結成好緣 暴惡之行 造成灾厄 也

바르고 착한 事業을 하면은 모든 것을 上帝任이 도우시고 諸天神聖이 도와 주시느니라, 暴惡한 行動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怨望과 嫉妬가 모여져서 쌓이느니라. 바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인연을 맺고, 暴惡한 행동에는 災殃을 만들어 내느니라.

果樹之上 發千枝萬葉 終結果實 一天之下 生千種萬品 養育人間 故 果樹之目的 在成長結果 天生人間之目的 理世泰平 歸榮於皇母也

과일나무위에는 數千個의 가지와 數萬個의 잎이 돋아나 마침내는 열매를 맺고 한 하늘아래에 數千萬가지의 品種이 생겨나 人間을 길러서 먹여 살린다. 그러므로 과일나무의 목적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있고, 上帝任이 人間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目的은 世上을 平和롭게 다스려 그 榮光이 上帝任께 돌아가게 하는데 있느니라.

世人 少有恩施 大望報來 小行功德 所願大利 然 唯上帝 不顧報酬而 永遠

廣施 何不感謝乎,

世上 사람들은 적은 恩惠를 남에게 베풀고 큰 報答이 오기를 바라고, 적은 功德을 행하고 큰 利益을 얻기 바라느니라. 그러나 오직 上帝任은 勞力의 대가를 돌아보시지 아니 하시고 영원히 恩惠를 베푸시나니 어찌 感謝하지 아니하라.

天與至誠人 共感應 人與正義人 同合力 故 無誠人 未承天命 亦不得寵愛 不義人 不得人望

上帝任은 精誠이 지극한 사람과 함께 感應을 하고, 사람은 바르고 의로운 사람과 같이 힘을 합하고, 그러므로 精誠이 없는 사람은 上帝任의 命命을 이어 받지 못하고 또한 上帝任의 특별한 사랑을 얻지 못하느니라.

眞理大道 如日月照明, 人間權力 如風雨暫過 暴風驟雨時 如蹴日沈月 收斂其勢 回復日氣則 悠悠蒼天 日月如舊照輝矣

眞理의 大道는 해와 달이 밝게 비치는 것과 같고, 人間의 權力은 비바람이 暫間 지나가는 것과 같고, 暴風과 소나기가 몰아칠 때는 太陽을 밝아 버리고 달이 잠겨 버리는 것과 같지만, 비바람이 그 勢力을 거두어 버리면 다시 日氣가 回復되어서 한없이 멀고 푸른 하늘에 해와 달은 예와 같이 밝게 빛나느니라.

一天之下 其恩普及萬民 其愛無不至四海同胞 一合世萬民 爲兄弟 相互親愛 相扶相助 建設地上天國 是人生之最大幸福 無上榮光也

오로지 上帝任은 均一하게 그 恩惠를 내리시어 온 세계 萬百姓에게 普及 해주시고, 그 사랑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고, 세계의 異民族과 하나 같이 團合하여 世上 모든 百姓들이 兄弟같이 서로 친하게 사랑하고, 서로서로 도와주며 地上에 天國을 건설하는 것이 人生의 最大幸福이요, 더없는 榮光이 나라.

宇宙運行不息之中 其間萬物生滅盛衰, 人生勤勉努力之中 漸次萬事進就成功,

하늘 全體를 쉬지 않고 運行하는 가운데 그 사이에 萬物을 生하고 滅하고 盛하고 衰하며, 사람은 부지런히 努力하는 가운데 점차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 成功 하느니라.

大空之中 多數星群 係懸運行 人心之中 多數妙理 蘊蓄包含 星隨經度 少無

違差 心隨眞理 少無違戾 是原理原則 至正至公也

큰 하늘가운데 수많은 별들이 매달여 運行하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수많은 妙한 理致가 마음속에 깊이 쌓여 겹쳐져 있고, 별은 經度를 따라 조금도 어그러져 차이가 없고 사람의 마음은 眞理를 따라 조금도 어그러진 잘못이 없고, 이것이 원리원칙이며 지극히 正當하고 지극히 公平한 것이니라.

天寒生水 夏日生炎 貪慾生罪 仁善生德 陽春回來 江無冰塊 天寒白屋 炎自消退 誠心悔改 罪自消滅 慈愛好施 德漸重厚矣

날씨가 몹시 추우면 얼음이 생기고, 뜨거운 여름날씨에는 더위가 생겨나고, 貪하는 慾心은 罪가 생겨나고, 어질고 착한 일을 하면 德이 생겨나고, 따뜻한 봄이 돌아오면 江에는 얼음덩어리가 없고, 날씨가 추워서 지붕이 하얗면 더위는 스스로 물러가고, 精誠스러운 마음으로 過去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고치면 罪가 스스로 사라지고, 慈悲로운 사랑을 베풀면 德이 漸漸 두터워 지느니라.

無根枯木 不發一寸枝葉, 無恩人間 不能暫時生存 故, 草木 先有根接地而後 枝葉茂盛 人生 先有命接天而後 心身榮光矣

뿌리없는 古木은 한치의 가지와 잎도 돌아나지 못하고, 上帝任으로부터 恩惠를 받지 못하는 人間은 잠시도 살수 없고, 그러므로 풀과 나무는 먼저 뿌리가 땅속에 묻힌 뒤에야 枝葉이 茂盛하게 자라나고, 사람 몸의 主人이신 靈魂은 上帝任과 接續되어야 몸과 마음에 榮光이 있을 것이다. (즉 明師任 指點).

天道循環 有春夏秋冬之序次, 人道循環 有富貴貧賤之更迭, 然 人道多私 不履正義公道則 是違背天地公道者也

天道가 循環하여 春夏秋冬의 順序와 次例가 있고, 人間의 道도 循環하여 富貴貧賤이 돌고 돌아, 서로 바뀜이 있고, 然이나 人間의 道는 私私로움이 많고 正義와 公道를 履行하지 않으면 이는 天地公道를 違叛하는 사람이니라.

天晴日月光明 水清深猶碧, 心清則 仁義 自然發生, 心誠則 外容 自然顯美矣

하늘이 청명하면 해와 달이 밝게 빛나고, 물이 맑고 깊으면 오히려 물색이 푸르고, 마음이 맑으면 어질고 착함이 자연히 생겨나고, 마음이 誠實하

면 결으로 얼굴모습이 자연히 清雅한 아름다움이 나타나느니라.

貴重之物 價値亦高 道德之人 品格亦高 故 求貴重之物者, 人皆願金銀 爲高尚之人者, 不可無敬天矣

貴重한 物件은 값어치가 역시 높고, 道德을 닦는 사람은 人格 역시 高尚하고, 사람은누구나 다 金銀寶배를 원하고, 高尚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何人을 莫論하고 上帝任을 공경하지 아니하라.

東方始明 萬物生色 眞心安定 常情調和 暗夜萬物無色 邪心 百情不調矣,

동쪽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萬物이 色彩가 생겨나고 참된 마음이 平安히 정해지면 모든 情이 調和가 되고,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는 色彩와 形態가 보이지 않고 不正한 마음은 모든 情이 調和가 되지 못하느니라.

天道如虛 充滿大宇 人事如實 缺損許多 天道靜寂 生物皆完成 人事奔忙 每有未完也

宇宙自然의 理致는 텅텅비어 있는 虛空같으나 큰 하늘에 陰陽의 보이지 않는 無形의 理와氣가 가득히 꼭차 있느니라. 人間의 일사는 넉넉한 것 같으면서도 항상 不足하고 잃어버리는 損害가 많고 宇宙自然의 理致는 고요하고 쓸쓸한 것 같지만 萬物을 생하여다 完全하게 成長 成熟시키고 사람의 일사는 매우 바빠도 모든 일을 다 完成하지 못하느니라.

天命日月 地不能自暗 君明智德 臣不能自奸 心明正義行不能自邪矣

하늘에 해와 달이 밝으면 地球는 스스로 어두울수 없고, 나라의 임금이 智慧와 德이 밝으면 臣下가 스스로 奸邪하지 못하고, 마음이 바르고 의로웁게 밝으면 行動이 스스로 奸邪하지 못하리라.

天氣陰霧則日光不明, 邪慾熾盛則性心不良, 清風吹來 雲霧自清, 眞理覺悟 邪慾退却矣.

天氣가 흐리고 안개가 끼면 햇빛이 밝지 못하고, 邪慾이 일어나 불타오르면 마음이 不良해지고 맑은 바람이 불어오면 구름과 안개가 스스로 사라지고 眞理를 깨닫고 깨달으면 不正한 慾心은 물러나가 버리느니라.

天地之間 陰陽兩氣調和處萬物化生 陰陽相克之處 萬物死滅 人世之間 正眞之道 殷盛之處 萬民泰平 正眞之道 泯滅之處 萬民塗炭矣

하늘과 땅사이에는 陰陽의 두기가 調和되는 곳에 萬物이 생겨나고, 陰陽

이 相克하는 곳에는 萬物이 죽어 없어지고, 人間世上에 바르고 참된 道가 성하는 곳에는 萬百姓이 泰平하고, 바르고 참된 道가 形跡이 아주 없어진 곳에는 塗炭(진구렁)에 빠져 困窮을 면하기 어려운 處地에 놓이게 되느니라.

人若生時背天恩則 死時天亦棄却 天以無形存在 造化有形物質 人以有形存在 暫生還元無形物也

사람이 萬若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上帝任 恩惠를 背叛하면은, 자기 죽을때는 몸의 主人인 靈性を 上帝任이 받아주지 아니하고, 棄却(反對)하여 물리쳐 버리느니라. 上帝任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 形體가 없는 存在이지만, 이 世上의 形體가 있는 萬物을 만들어 내시고, 사람은 形體가 있는 존재라도 잠시 살다가 죽으면 形體가 없고, 보이지 않는 내 몸 主人이 無極理天의(上帝 老母任) 품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修道者 上法青天之清淨高廣 下學天地之高低厚博則 其至於聖賢之境不遠矣

道を 닦는 사람은 위로 푸른 하늘의 맑고 깨끗하고, 높고 넓은 것을 본 받아야 하느니라. 아래로는 큰 地球의 높고 얇고 두텁고 넓은 것을 배우면 멀지않아 그 聖人이나 賢人の 境地에 이르느니라.

天藏數億萬個星辰大寶 靜寂無驕誇 聖人藏無窮智慧度量大道, 愚默無 傲慢 大富藏幾千萬金錢財寶, 而勤勉無怠奢 大德藏幾十百功勳慈善而隱掩無布揚也

明明上帝任은 數億萬個의 큰 보배의 별들을 간직하고 계셔도 항상 고요하며, 驕慢하고 자랑함도 없느니라.

聖人은 無窮한 智慧와 度量과 큰 道를 간직하고 계셔도 어리석은 듯 고요하고 傲慢함이 없느니라. 큰 富者는 數千萬金의 財物과 보배를 간직하고 계셔도 부지런히 努力하고 怠慢하거나 奢侈하는 일이 없느니라. 큰 德人은 數十番 數百番의 功勳을 세워서 간직하고 계셔도 慈善을 隱蔽하고 自己名譽를 世上에 들어올려 나타내지 않느니라.

宇宙之間 大小諸物, 莫非上帝恩澤中出來 故知原因根本 則何不感謝老母恩 何不敬拜老母德乎

하늘 사이에 꼭차있는 陰陽理氣와 크고 작은 모든 物件은 老母任 恩澤가운데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고, 그러므로 그 原因과 根本을 안다면, 어찌 老母任께 感謝하지 않을 것이며, 어찌 老母任의 높은 德을 恭敬하고 禮拜를 올리지 않으리요.

理性勝物慾則 心情快樂 每事 公明正大 物慾勝理性則心情煩悶 精神混濁卑下 理性神聖清閑高遠 物慾污濁粗雜鄙陋也

良心이 物慾을 이기면 마음이 愉快하고 즐거우며, 모든 일에 公明正大하고 物慾이 良心을 이기면, 마음에 煩惱가 생겨 精神이 混濁해서 卑劣해지고, 理性은 神聖하고 清閑하고 高尚하고 遠大하느니라. 物慾은 污濁하고 粗雜하고 더러운 것이니라.

何物 不介在天地之攝理, 何物 不蒙被天地之恩澤耶, 若人無感恩感德之心思則 何異被草木之自生自滅狀態乎

어떠한 物件인들 天地의 精靈인 陰陽理氣가 萬物에 介在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떠한 物件인들 天地의 은혜로운 德澤을 입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만약 사람이 上帝任의 恩惠를 感謝하고 恩惠로운 德을 感動할줄 아는 마음의 생각이 없으면, 저 草木이 스스로 생겨났다가 스스로 죽어 없지는 狀態와 무엇이 다르단 말이고.

天體遼遠廣大之中 有生理氣, 地球安靜定着然 速轉軌道, 天 如空如虛 地 如靜如實, 恒常生動不息 況人生世間, 豈無公勉活動哉

宇宙는 아득하게 멀고 넓고 큰 가능데 살아서 움직이는 理와 氣가 있고, 地球는 고요하고 편안하게 定着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天體가 公轉하는 일정한 길을 따라 재빠르게 돌고 있느니라. 하늘은 구멍같이 텅텅비어 있는 것 같고, 地球는 고요한 것 같으면서도 誠實해서 항상 쉬지않고 살아서 움직이고, 況次 人間은 世上에서 어찌 公正하게 힘써서 활동하지 않는 단 말이고.

天地之道 無始無終 永遠一理, 人生之身 有始有終 百年有限 故, 履修天地之道者 精神的生命永遠不滅, 愛一身之命者 物質的生命限百終結矣

天地의 道는 처음 始作도 없고 끝도 없으며 永遠도록 하나의 理致뿐이니라. 사람의 몸은 始作이 있고 끝이 있어도 길게 오래살아야 百年뿐이요, 그러므로 天地의 道를 닦고 履行하는 사람은 精神的인 生命이 영원히 滅하여 없어지지 아니하고, 自己 한 몸의 生命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物質的 生命뿐이라 많이 살아야 한 百年이면 끝난다.

天道有常 世事無常 山色古今同 物情隨時變, 以真理正道 爲有常心基 以適時善處, 爲無常權度則 是無違人生道者也

天道는 항상 常變함이 없고 世上의 모든 일은 항상 변하고, 山色은 옛날

이나 只今이나 같으나 世上人心은 時代를 따라 변하고, 이 眞理正道로 마음의 터전을 삼고, 때에 따라서 적당한 방법으로 좋도록 처리하는 것은, 生死興亡의 덧없는 法度를 삼는 것이니 이는 사람의 道理를 어기지 않는 것이 되느니라.

天不奪人生之自由基本權, 人不害草木之自由生長理, 然後 天可以有償善罰惡 人可以有取善捨惡之自由權也

上帝任은 사람의 自由와 基本의 權利를 뺏지 아니하고, 사람은 草木이 自由로 生長하는 理致를 해치지 못할 것이요, 연후에 上帝任이 善한 사람은 償을 주고 惡한 사람은 벌을 주느니라. 사람은 가이 善을 取하고 버리는 自由의 權利가 있느니라.

天時眞理之大海 地是寶德之大基 得道者 比較天之無窮眞理, 不過一勺水之小量 有德者比較 地之博厚寶德 不過一個米之小粒也

하늘은 眞理의 큰 바다요, 땅은 豊富한 德의 큰 터전이요, 道를 닦아 奧妙한 理致를 깨달아도 하늘의 無窮한 眞理에 比較한다면 一勺물의 小量에 불과하고, 德이 있는 사람은 땅이 넓고 두터웁고 豊富한 德에 비교한다면 한 개쌀의 적은 낱알에 불과하느니라.

天道運行 無限大 人事動作在一方 歲去紅顏 添皺皮 大道晦顯多明滅也

天道가 運行하는 것은 한없이 크고,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하여 努力하는 일은 한쪽 모서리에 있는 것이요, 세월이 흘러가니 젊고 아름다운 얼굴이 늙어서 주름살만 늘어가고, 大道는 天運으로 숨었다 나타났다 또 나타났다 없어졌다 함이 많은 것이다.

聖借天意明眞理 人守良心是正義 無言天意非聖者 誰能受聽 無形良心非義勇者 誰能保全乎

聖人은 明明上帝任의 뜻을 빌어서 眞理를 밝히고, 사람은 良心을 지키는 것이 바르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 말이 없는 上帝任뜻은 聖人이 아니면 누가 능히 받아 들을 수 있으리요, 形體가 없는 良心을 의롭고 勇敢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능히 保全할수 있으리요.

道屬於天 其理廣大無量 德屬於地 其意至極敦厚 故 道德如鳥之兩翼 如車之兩輪也

道는 上帝任이 거느리니 그 理致가 넓고 커서 限量이 없고, 德은 萬物을

실고 있는 地球에 붙어있는 것이다. 그 뜻이 지극하여 情이 敦篤하고 그러므로 道와 德은 새의 두 날개와 같고 또 수레의 두바퀴와 같은 것이니라.

樂天樂道者 雖無音樂 自然心情 清和愉悅 貪財貪慾者 雖有音樂 自然胸中 充邪憂鬱矣

上帝任을 좋아하시고 道를 좋아하시는 사람은 비록 즐거운 소리는 없으나 자연히 마음이 맑고 和平하게 愉快하고 貪財 貪慾者는 비록 즐거운 소리가 있어도 자연히 마음에 不正한 근심 걱정으로 우울함이 짝차 있느니라.

天理種人心 是謂良心 順應自我良心命令者 是爲上帝之孝 拒逆良心者 是爲上帝之不孝 良心 本是公正光明 變良心以邪慾爲主則 爲邪魔奴隸也

上帝任이 사람의 마음에 理性을 심어주시고 이것이 즉 이르되 良心이다. 自己良心의 命命을 順應하는 사람은 이것이 上帝任께 孝道를 하는 것이요. 良心을 拒逆하는 사람은 이것이 上帝任께 不孝하는 것이니라. 良心은 本來에 公正하고 밝게 빛나는 것이요, 良心이 변하면 邪慾이 主人이 되어 不正한 魔鬼의 奴隸가 되느니라.

良心 天根之枝葉, 亦爲 天意聯絡之通路, 惡情 邪魔之奴子, 亦爲 斷絕天意之刀劍, 良心 通天永生之道, 惡情 浮世滅亡之毒也

良心은 上帝任 根幹의 가지와 잎파리요, 역시 上帝任의 뜻을 聯絡하는 通路가 되느니라. 惡한 마음은 不正한 魔鬼의 奴隸種子요, 역시 上帝任 뜻을 끊어 버리는 큰 칼이니라. 良心은 上帝任과 통하는 永遠 不滅의 眞道이니라. 惡한 마음은 괴로움이 많은 뜬 世上이 亡하여 아주 없어지는 惡毒이니라.

天若乖違日月星辰循環軌道則 相互冲突 破壞 人若違反飲食起居動作生活法道則 氣血失調 發痲病 事業違差時期順序 先後之造 作道理則 空費資材 未成功矣

만약 上帝任이 日月星辰이 循環하는 軌道를 어그러지게 한다면 서로가 冲突해서 破壞가 될것이요, 만약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行動에서 하루 日課를 마치고 먹고 자고 일어나는 生活法道가 어그러지면 氣와 血이 調和를 못해서 병이 생기고, 事業을 하는데 있어서 時期와 順序와 先後를 잘 가려서 만들어 내는 道理를 어기면 공연히 資材만 消費시키고 成功도 하지 못하느니라.



天何要財 神何求錢 憑藉上帝神佛之恩云云 多貪金財之人 昭昭明天之下 不可容納其罪矣

하늘이 어찌 財物을 要求하며 諸天神明께서 어찌 金錢을 要求하리요, 上帝任을 憑藉하고 神佛任의 恩惠를 云云해서 財物과 金錢을 많이 貪내는 사람은 밝게 나타나는 밝은 하늘아래 그 罪를 容恕받지 못하리라.

天地之間 生物之榮枯盛衰運 物不可自離脫 逆不可自拒逆 是係在明明上帝支配權也

하늘과 땅 사이에는 生命을 가진 動物과 植物은 盛하고 衰함이 뒤바뀌고, 또 萬物은 榮枯盛衰를 스스로 離脫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 拒逆하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다 明明上帝任의 支配權에 매달려 있는 것이니라.

如無爲焉 大有爲者 天也, 如有爲焉 局限小爲者人也, 故 治國平天下救濟蒼生者 効天法地之偉人 其功德廣大弘厚者也

하늘일이 없는 것 같으면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上帝任이요, 하늘일이 있는 것 같으나 적은 일에 局限된 것은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나라와 온 世上을 平和롭게 다스리고 萬百姓을 구제하는 이는 하늘을 본받고, 땅을 본받으면 위대한 사람이니라. 그 功이 넓고 커서 厚德하니라.

天道虛虛焉有實 人道實實焉有虛, 天道無形有眞 永久不變, 人道有形多假 如風雲翻覆 故, 天道至公至大 人事多私微小也

天道는 텅텅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實狀이 있고, 人道는 豊足하게 짝차 있는 것 같으면서 텅텅비어 있고, 天道는 形體가 없으면서 眞實함이 있어 영원히 변함이 없고, 人道는 形象이 있어도 거짓이 많아 風雲과 같이 翻覆되고, 그러므로 天道는 지극히 公平하고 지극히 巨大하며 人事는 사사로움이 많고 微微하느니라.

聽無聲之天語 見無形之天顏, 呼吸無臭之天香 食無色之天精者, 是眞修道德者也

소리가 없는 上帝任의 말씀을 듣고, 形體가 없는 上帝任의 얼굴을 볼수 있고, 냄새가 없는 上帝任의 香氣를 呼吸을 하고, 빛깔없는 上帝任의 精氣를 먹고 사는 것은, 이것이 眞實하게 道德을 닦는 사람이니라.

未覺自性自心者 亦不知上帝尊意 未修自身自行者 不合愛人敬待之禮矣

自己性品과 自己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는 역시 上帝任의 높은 뜻을

알지 못하고, 自己 몸과 自己 行動을 닮지 못한 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삼가 恭敬하고 待接하는 禮義에 맞지 않는 것이니라.

以小義 不可損大義, 以小利 不可棄大利. 以物情 不可背良心, 以人事 不可逆天理天命矣

작은 義理로 큰 義理를 損傷시키지 말고, 작은 이득으로 큰 利得을 버리지 말고, 世上 形便으로 良心을 背反하지 말고, 사람의 일로 天地自然의 道理와 天命을 拒逆하지 못할 것이요.

太初天作佳山麗水 又造香花歌鳥 使人樂居世間而 人皆眼昏塵煙 耳聾俗音 心迷物慾 身縛罪罪 不知樂天樂地 何不可惜可憐乎

天地가 開闢한 처음, 上帝任께서는 아름다운 산과 아름다운 물을 만들고 또 香氣나는 꽃과 노래하는 새를 만들어, 사람들을 世上에서 즐거웁게 살아가게 하였는데, 사람들은 汚濁한 世俗에 눈이 어두어, 俗人들의 잡소리에 귀가 먹어 버리고, 마음은 物慾에 迷惑되어서 自己 몸은 罪業에 묶여 있어서 上帝任 恭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즐거운 安息處에서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 어찌 哀惜하고 可憐하지 아니하랴.

日中則吳 月盈則虧, 天地有運行之常道 勤儉則富, 怠慢則貧 是人間生活之原理, 無智奸巧者 以不義非理 欲取幸福 可能有得乎

太陽이 점심때가 되어 하늘 한가운데 오면 西쪽으로 기울어지고, 달이 陰曆 每月 十五日이 되면 滿月이 되고 보름이 지나면 이즈러지기 始作하는 것은 하늘 땅이 쉬지 않고 運行하는데 있느니라. 사람이 부지런하고 儉素하면 富者가 되고, 게으르고 懶怠하면 貧寒하고, 이것이 人間生活의 根本理致가 되느니라. 智慧가 없이 奸巧한 사람은 의로움도 없고 理致도 없이 分數밖의 지나친 慾心으로 幸福을 얻을려고 하니, 어찌 능히 얻을수 있단 말이고.

欺天欺人之罪厄苦 如影子隨身邊 敬天愛人之福德恩 如瀑布長瀧水也

上帝任을 속이고 사람을 속인 죄의 災殃과 괴로움은 그림자가 몸등이를 따라 다니는 것 같고, 上帝任을 恭敬하고 만 사람을 사랑하는 福德으로 恩惠는 길고긴 瀑布水의 여을물과 같으니라.

天有元亨利貞之理 地有春夏秋冬之節 人有仁義禮智信 若人無是性 天地人之三位三才矣

하늘에는 元亨利貞의 理致가 있고 땅에는 春夏秋冬의 四季節이 있고, 사람에게는 仁義禮智信의 性品이 있고, 사람이 만약 이 性品이 없으면 天地人の 三位三才에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明明上帝之弘恩大德 以何報償 但正心淨身 日夜敬處 盡人生之道 是爲孝天歸榮光之天 是爲人之義務也

明明上帝任의 은혜와 큰 덕을 그 무엇으로 報恩하오리까. 그것은 단 몸과 마음을 바르고 깨끗이 하며 밤낮으로 恭敬하면 사람의 道理를 다한 것이니라.

人之智能有限 故 每逢難事 人之肉身有限 故 生死交叉時 更延長於天堂英生矣

사람의 智能은 限界가 있고, 그러므로 모든 어려운 일을 만나면 上帝任의 도움과 諸天神明의 도움을 懇請을 하느니라. 사람의 肉身도 또 限界가 있고 그러므로 生死가 서로 바꿀때는 天國에가서 永生할 것을 懇切히 원한답니다.

天地之道 無言而生育人間萬物, 人生之道 有言而記載文字, 觀四時物 知天地運行之跡, 觀傳統經典 知人生世間之道也

天地의 精氣는 말이 없어도 人間과 萬物을 生肉시키고, 人生의 道는 말이 있어서 文字를 記載하고, 春夏秋冬의 物色을 보면은 하늘땅이 運行하는 形跡을 알수 있고, 系統的으로 전하여 내려오는 聖人の 經書를 보면은 사람이 세상에 사는 道를 알수 있느니라.

聖經 記眞理之文字, 天地 無文字之聖經, 文字聖經 不過小分之眞理, 無文字天地 包含無量無窮之眞理也

聖人の 글은 眞理의 文字를 記入한 것이요, 天地는 文字가 없는 거룩한 글이요, 글자가 있는 聖經은 적은 分量의 眞理에 不過하고, 天地의 글자가 없는 글은 無量無窮한 眞理가 包含되어 있느니라.

唯上帝無所不在 無所不能 無所不知 完善完全而, 唯人則雖聖 皆有不完全點也

上帝任은 안계시는곳이 없고, 能力이 없는 곳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추호도 거짓이 없어서 完全無缺하시고 오직 人間은 거룩해도 또는 聖人이라 할지라도 不完全한 점이 있느니라.

若成理想世界則 是爲地上天國 人皆眞理道德 必 實踐實行則 可以造成地上天國矣

만약 知的이고 道德的이고 美的이고 社會的으로 現實的으로 不滿이 없는 理想的 즉 極樂世界를 또는 佛性世界를 이루는 것이 地上天國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眞理인 道德을 修養하면은 반드시 實踐하고 實行하면 가이 地上에 極樂世界를 만들어 이를 것이다.

天地肇判 上有蒼空 列張日月星辰, 下有黃地 分布山海大陸, 春夏秋冬 四時寒暑溫冷 雨露霜雪, 風雲造化 循環運行 是非上帝則, 誰可能乎 至尊至嚴 可以敬畏, 全智全能 可以崇拜 大榮大德, 可以讚頌 至恩至惠 可以感謝, 魚忘水恩 人何忘天恩 敬天愛人, 修道之始 成道之源也

天地開闢 이후 하늘과 땅이 비로소 나뉘지고, 위로는 푸른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별려서 베껴어 놓고, 아래로는 누런 地球가 있어 山과 바다와 大陸을 分布해 놓고, 春夏秋冬의 네계절과 춥고 덥고 따듯하고 서늘하며, 비와 이슬과 서리와 눈과 風雲의 造化와 宇宙가 끊임없이 되풀이 하여 돌고, 天體는 軌道를 따라 運動해서 가고 있으니, 이것이 上帝任이 아니면 누가 가능히 할수 있으리요.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嚴하시니 가이 恭敬하고 두려워 하지 않으리요. 完全 智慧와 完全한 능력을 가이 崇拜하지 않으리요. 큰 榮華와 크고 큰 德을가이 찬송하지 않으며 또한 지극한 恩惠를 感謝하지 않으리요. 물고기는 물의 恩惠를 잊고 모를지언정 사람이 되어서 어찌 上帝任의 恩惠를 잊을수 있단 말이요. 上帝任을 恭敬하고 萬人을 사랑하는 것은 道를 닦는 始作이요, 道를 이루는 根本이니라.

萬古如常 天地運行之道, 時時無常 人生造作之事, 人善能作 泰平聖代, 人惡可爲 戰亂凶灾矣

아주 옛날 太古때부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늘 땅을 運行하는 道요, 때때로 변하는 것은 사람이 흥내내어 만드는 일이니라. 사람이 착하면 능히 泰平(聖代)를 이룰수 있고 사람들이 惡하면 戰爭과 凶한 災殃이 일어나느니라.

上帝 創造天地萬物之主, 人生 發明科學文化之主, 然 人不知上帝之造化原理則, 反爲科學之奴隸也,

上帝任은 天地萬物을 創造하신 主人이요, 人生은 科學文化를 發明하는 主人이요, 然이나 上帝任의 造化 原理를 알지 못하면 반대로 科學의 奴隸다.

天作之物 萬古一色, 人間歷史 多變多樣 逆有興亡盛衰也

上帝任이 만든 物件은 아주 옛날부터 영원히 한결같고, 人間的 歷史는 변함도 많고 模樣도 많더라. 또 興하고 亡하고 盛하고 衰함이 있더라.

萬水流入碧海 海無盈溢, 萬石疊泰山 頂無戴天, 人雖終身感謝 不能皆報 上帝之大恩大德矣

수많은 모든 江河川의 물이 흘러서 푸른 바다로 들어가도 바다는 넘치지 아니하고, 數萬個의 돌을 쌓아서 泰山을 만들어도 山頂上으로 하늘을 이지 못할 것이요, 사람은 平生을 感謝해도 上帝任의 큰 恩惠와 큰 德을 다 갚지 못하느니라.

天日 恒光明 若黑雲蔽則陰暗不明, 人心 恒善良 邪慾蔽則 陰凶不良 日在青天 萬古同一 人在塵世 惑善惑惡 可嘆可嘆何時成地上天國乎

하늘에 太陽은 항상 밝게 빛나고, 만약 검은 구름이 가리워지면 캄캄하여 밝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은 항상 善良해지고, 太陽은 푸른 하늘에 있는 것은 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한결같이 똑같은 것이요, 사람은 汚濁世上에서 살아감으로 혹은 善하고 혹은 惡하고 하니, 歎息하고 歎息할 일이라 그 어느때나 地上에 天國이 이루어질꼬.

=終=

이 책의 저작권은 (재) 국제도덕협회(일관도)에 있으며, 무단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